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통산사는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천년이 넘는 동안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傳法의 공간으로 그 맥을 이어 왔습니다. 특히 선종의 특수성이 담겨 있기에 도심에서 벗어나 깊은 산중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과 사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한국 산지가람의 특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한국의 전통산사는 자연과의 조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산사는, 불교의 고유한 가르침과 그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풍토가 융합된 통불교 사상의 공간이자 예불과 수행정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웅전과 중정을 중심으로 한 예경의 공간이 있으며, 또한 스님들이 수행하고 생활하는 일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산의 봉우리와 계곡 등 다양한 주변 경관과 결합하여 특유의 배치를 이루며, 한국의 전통산사가 가지는 고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천등산 봉정사, 봉황산 부석사, 영축산 통도사 등, 일곱 곳의 등재 대상 사찰은 이러한 한국 산지가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사입니다. 이 사찰들은 삼국시대부터 유구한 역사를 지닌 사찰들이자, 다양하게 형성된 축과 가람배치로 한국 전통산사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곳의 전통산사는 지난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이후 2018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재 대상 산사들에 대한 정보, 나아가 한국의 전통산사가 가진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전통산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장 자승